

3/4/18

설교 제목: 하나님의 구원 비밀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11:1-24

- (롬 1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절관주** 삼상 12:22, 렘 31:37
- (롬 11:2)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 (롬 11:3)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절관주** 왕상 19:10
- (롬 11:4)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절관주** 왕상 19:18
- (롬 11:5)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 (롬 11: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 (롬 11:7)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절관주** 롬 10:3
- (롬 11:8)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절관주** 사 29:10, 마 13:14
- (롬 11: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덧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절관주** 시 69:22
- (롬 11: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 (롬 11: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 (롬 11:12)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총만함이라도 **절관주** 사 2:2, 스펴 2:11
- (롬 11:13)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 (롬 11:14)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 (롬 11: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 (롬 11:16)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 (롬 11: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절관주** 엠 2:12
- (롬 11: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절관주** 요 4:22
- (롬 11: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 (롬 11: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 (롬 11:21)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 (롬 11: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고전 15:2, 히 3:6, 마 22:13
- (롬 11:23)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 (롬 11:24)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11 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 및 인류의 구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면이 공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인간에게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택했고 약속까지 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순종하여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신뢰성과 관련이 되는 문제로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만 하기에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본 장은 세 부분, 1-10, 11-24, 25-36 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 중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부분에서 하나님이 유대인 중 일부를 버리신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롬 1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인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나를 보라고, 내가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그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모두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롬 11:2)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롬 11:3)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롬 11:4)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롬 11:5)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사벨은 바알 신을 섬겼으며 특히 이사벨은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600 여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각각 자신의 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어떤 신이 제단 위에 놓인 번제물을 받는가를 지켜 봄으로써 참신을 가리는 대결이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쌓은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번제물을 태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사실을 안 왕후 이사벨이 진노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찾아 나서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혼자 외롭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고.

(왕상 19: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 믿음을 저버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 놓으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일이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때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가 있어 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다윗 왕이 남 유다를 다스릴 때에도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할 때도 불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 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을 통해 유대인 중의 남은 자와 이방인 가운데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유대인 중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숨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롬 11: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인이 실족은 하였지만 아주 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이르게 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도록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롬 11:12)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총만함이라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장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 올 때면 온 세상은 더 총만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롬 11:13)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롬 11:14)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롬 11: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애쓰는 이유 중 하나도 자신의 핏줄인 유대인의 질투심을 유발하여 그들 중 얼마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비유로 구원의 신비를 설명합니다.

(롬 11:16)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롬 11: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롬 11: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 비유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그것으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에 참여한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접붙임의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우리는 접붙이는 방법이 보통 접붙이는 방법과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돌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면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 돌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 접붙였다고 거꾸로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을 붙이기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데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늙은 참감람나무에다 돌감람나무를 접붙임으로써 생기를 잃은 늙은 참감람나무가 다시 회생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 비유는 돌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얻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돌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죽어가는 참감람나무를 살리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구원과 함께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뿌리의 진액'입니다.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이란 곧 우리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뿌리의 진액'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참감람나무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뿌리의 진액을 받기 때문이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닌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그들은 참감람나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가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들이나 그 구원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롬 11: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롬 11: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롬 11:21)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롬 11: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롬 11:23)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롬 11:24)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게 된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 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니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끼지 않고 찍어 버린 하나님께서 접붙임 받은 가지인 이방인들을 못찍어 버리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죄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엄위하고 준엄한 처분이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 왔을 때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부치신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그들을 왜 참감람나무에 접붙치어 구원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나아서, 우리 아니면 안되겠기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감람나무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했을 때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잘라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엄위하고 준엄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돌감람나무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했을 때 왜 잘라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생각하며 항상 겸손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있어야 하겠습니다.